

# 혼돈에서 질서로 나아가는 길

이남호 평론집 「문학의 僞足」(전2권)

박철화

문학평론가

오랜 기간 그러했지만 특히 근대 이후 이 땅의 역사는 과란과 곡절의 그것이었다. 따라서 한 비평가가 '궁핍한 시대'라고 압축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던 이 시기는 무엇보다도 남-중심-질서의 부재에서 비롯된 혼돈에 의해서 그 핵심적 면모가 뚜렷하게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지식인을, 자신의 현실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아마도 근대 이후 이 땅의 지식인들에게 부여된 가장 큰 책무는 그 혼돈의 현실 속에서 질서를 세우는 일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분화된 개별적 분야로서가 아니라 자체의 속성상 궁극적으로 삶의 총체적 질서 회복을 문제삼고 있는 문학은, 끊임없이 자신의 근원적 질서를 은폐하고 있는 이 혼돈의 시대에 보다 과중한 책무를 떠안고 있다. 문학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문학을 하는가, 따위의 의문은 바로 문학의 입장에서, 문학을 통해 혼돈에서 질서로 넘어가고자 하는 의식인들의 고뇌어린 노력을 일컫는 말에 다름 아니다.

최근에 간행된 이남호의 「문학의 僞足」 1·2권은 그 노력에 동참해온 저자의 수확물이다. 비평가로서 이미 「한심한 영혼아」라는 재미있는 제목의 평론집을 선보인 바 있었던 그는 그것의 연장선에서 메타언어로서의 비평, 즉 '문학의 문학' '문학에 대한 문학'을 화두로 제시함으로써 이 혼돈의 시대(그를 따르면 '해체의 시대')에 텍스트와 비평, 그리고 현실의 유기적 관계를 천착하고 있다. 첫 평론집과 마찬가지로 재미있는 제목을 달고 있는 새로운 두 권의 평론집에서 우리는 저자의 자세를 발견할 수 있는데, "문학은 현실의 僞足이며, 문학평론은 문학의 僞足"이라는 말이 바로 그것이다. 즉 문학이 현실적인 효용력을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 현실적 효용이 인간을 자신의 능력이 미치는 기존의 현실 속에 얽어매는 것임에 반해서 비효용성으로서의 문학은 꿈으로 표현되는 새로운 현실의 지평을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현실을 총체적으로 부정할 수 있는 힘을 얻고, 비평은 그러한 문학의 일차적 텍스트는 아니지만 시나 소설 또는 그밖의 장르를 매개로 하여 텍스트의 의미의 지평을 확대하고 재창조함으로써 문학과 현실을 동시에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앞서서도 이야기한 바 있지만 우리가 흔히 비평을 '문학의 문학' '문학에 대한 문학'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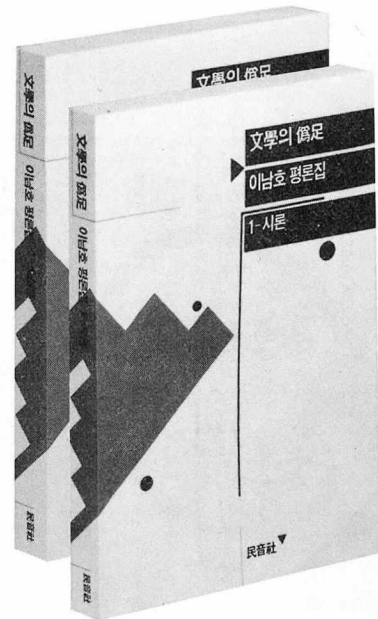
**저자는 텍스트와 비평, 그리고 현실의 유기적 관계를 천착하여 문화사적 의미망을 구축하는 데 일단 성공하고 있다. 아마도 그것은 그가 지닌 이론적 깊이보다는 특히 시분석에서 두드러지는 그의 예민한 감각에 힘입고 있을 것이다. 그의 감각은 동세대의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탁월하다.**

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이상에서와 같은 저자의 비평관은 「해체시대의 비평과 비평가」라는 글에 잘 드러나 있다.

그에 의하면, 우리의 현재는 모든 가치기준과 도덕률이 해체되고 탈중심화된 인식적 카오스의 상태에서 허우적거리는 해체의 시기이다. 이때에 우리는 비평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 물음은 두 가지 당위성, 즉 근본적 당위성과 상황적 당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근본적 당위성에 관하여 : 문학이나 비평은 하나의 제도로서 생성 초기에는 유연성에서 비롯된 충만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지만 그것은 필연적으로 점차 상투적인 것으로 굳어짐으로써 더 이상 변화된 현실을 담아낼 힘을 갖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비평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그 상투적으로 굳어진 제도를 다시 유연하게 재편성할 수 있는 계기를 이룬다. 마치 마르크스의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을 문학적으로 차용한 듯한 이러한 사유는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의 '낯설게 하기'라는 개념과 맞닿아 있다.

다음은 상황적 당위성에 대하여 : 궁극적으로 가치판단 행위인 비평은 기존의 가치와 권위가 허물어져 내리는 혼란의 시대일수록 그 역할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데, 가치판단 행위라 함은 가치기준의 토대 위에서 가능한 것이라는 점과 아울러 가치의 질서를 통제하고 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저자에게 비평이란 근본적 당위성에 대한 응답으로서 끊임없이 가치기준의 토대를 새롭게 정립하며 동시에 상황적 당위성에 대한 응답으로서 혼돈의 시대에 가치의



질서를 새롭게 확립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다.

그런데 저자에 따르면 여기에는 두 가지 전제조건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 지식의 상대주의적 성격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이 지닌 지식의 하나로서의 비평도 상대성을 벗어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판단으로서의 비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문학성에 대한 합의'와 '이데올로기의 왜곡의 극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첫째 '문학성에 대한 합의'는 주체가 처한 내적·외적 상황의 변화에 따른 인식의 상대적 성격을 부인할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거기에는 문학을 문학이게 하는 변치 않는 그 무엇이 있다는 말이다. 둘째로 '이데올로기의 왜곡의 극복'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재의 상황과 관련하여 한 사회에 대한 이데올로기적·유토피아적 전망이 구체적 현실과의 상호검증이라는 회로를 거치지 못할 때 그것은 관념적인 편협한 인식에 그치고 만다는 점을 경계하는 말이다. 저자가 칼 포퍼의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을 인용하고, 사회과학적 인식이 부분적이라는 점을 거듭 지적하며, 현재 문단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민중문학·민족문학·노동문학 등에 대해 일말의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비평정신은 구체적 현실에 주목함으로써 허위 의식으로서의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자 하며 나아가 진정한 현실에 대한 총체적 인식을 희구한다.

이와 관련하여 비평가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최소한의 문학성에 대한 변별력을 갖추어야 한다. 단순한 문필가나 문학연구가와 비평가가

나뉘어지는 부분은 바로 여기에서이다. 아울러 비평가는 현실을 총체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현실을 구성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역사 전반에 걸친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 어느 정도 이상의 감각과 인식을 지녀야 한다. 이렇게 힘주어 말한 저자는 위에서 요약한 문제의 식으로 텍스트에 접근하여 흥미있는 평문을 선보이고 있는데 「편모슬하에서의 시쓰기」는 가장 대표적인 예를 이룬다.

이미 「詩와 非詩의 변증법」이란 글을 통해 80년대 전반 시의 특성을 지적하였던 저자는, 그것의 연장선에서 「편모슬하의 시쓰기」를 통하여 부제가 말하고 있듯이 80년대 후반 시의 '한' 특성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80년대 전반의 시는 기존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대변하던 상징적 父權과의 싸움을 통해 자신의 자아를 정립해 나갔고, 80년대 후반의 시들은 그 해체된 부권의 토양 위에서 성년식을 거치지 못한 채, 길 위에서 서성이며 방황한다. 이러한 80년대 후반 시인들을 공통적으로 특징지우는 것은 편모의식이다. 즉 80년대 전반의 싸움에서 해체된 부권이 새로이 자신의 위상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본받거나 또는 거부해야 할 '아버'를 갖지 못한 채 어른-또 하나의 '아버'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의 시에서 격렬한 고뇌의 깊이가 느껴지기보다 발랄함이 두드러지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이상의 요약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는 텍스트와 비평 그리고 현실의 유기적 관계를 천착하여 문화사적 의미망을 구축하는데 성공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것은 그가 지닌 이론적 깊이보다는 특히 시분석에서 두드러지는 그의 예민한 감각에 힘입고 있을 것이다. 그의 감각은 동세대의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탁월하다. 하지만 감각은 고뇌의 깊이를 얻지 못할 때, 단순한 재치로 멈추고 만다. 강석경의 「숲속의 방」에 대한 그의 평가가 그 단적인 예일 것이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가 자신의 문학관과는 상이한 효용으로서의 문학에 대해 엄정하며 객관적인 검토보다는 직감적인 반발을 보이고 있다는 점인데, 과연 그것은 타당한 견해일까? 이 글을 쓰고 있는 필자 또한 그 대답을 마련하지 못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또 나아가야 한다. 그 누구도 혼돈에서 질서로 나아가는 움직임에 거부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